국가등록유형문화재 사이야 주조점

헤이세이 10년(1998년) 9월 2일, 국가등록유형문화재에 등록

사이야 주조점이 있는 이시와키 거리는 에도시대에는 가메다 번 이와키 씨 니만고쿠의 조카마치카메다에 버금가는 중요한 상업지였습니다. 또 기타마에부네 기항지인 「이시와키미나토」의 항구마을로서 번창했던 중심부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예로부터 거리 뒤에 있는 표고 약 140m의 신잔에서 나오는 복류수를 사용한 양조업이 성행했으며, 다이쇼 13년(1924년)의 「혼조마치 업명록」에 따르면 시내 양조업 중 5집이 이 거리에 인접해 있어 주조업을 비롯해 된장 간장 양조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이야 주조점은 메이지 35년(1902년)에 창업했으며 사명에 있는 사이야는 창업자 이름인 사이토 야타로(齋藤彌太郎)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택 및 점포와 창고는 창업 때 그대로입니다. 점포가 거리에 접해 있고 아래채 차양을 내미는 이시와키 거리 상가 특징 구조에서 2층에 서양식 디자인을 도입해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정원을 둘러싸듯이 점포의 동쪽에 있는 주택 외관은 일본식 디자인으로 점포와 대조를 이루어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조 공장 부지는 높낮이 차 6m의 신잔 기슭 경사지에 있으며 물저장고가 있는 공장들은 이 사면을 이용해 계단 형태로 지어졌고 트러스 구조의 고야구미를 사용해 높고 광대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장에는 흙벽으로 만든 서창고, 중창고, 동창고, 병창고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장소에 있는 정미소에서 술 제조가 시작되어 그 아래에서 나오는 복류수를 사용하여 술빚기와 술저장이 경사를 따라 공정이 진행됩니다. 그 앞에 사무실과 점포가 있으며 이시와키 거리를 사이에 두고 술을 병에 담는 공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양조공장의 구조는 술 생산지인 아키타 현내에서도 드문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와키 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인 사이야 주조점을 통해 기타마에부네 교역에서 번성한 메이지 시대의 상가 건축물과, 당지 양조업의 발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조, 형식 및 건축연대

주택, 점포	2층 목조건물, 일부 동판지붕인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갤러리(구 쌀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절임 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병 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문고 창고	2층 흙벽창고 건물,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사무소	흙벽창고 단층건물, 철판지붕, 쇼와 초기
서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쇼와 초기
중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동창고	흙벽창고 단층건물, 기와지붕, 쇼와 초기
물저장고	목조단층건물, 기와지붕, 쇼와 초기
문	목조관문, 동판지붕, 메이지 35년(1902년)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